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홈페이지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19:00	
			06:30 (새 벽)	

2020년 본당 사목 목표 : 1.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선교사가 됩시다.” 2.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알림

- 오늘은 제53회 군인주일로 군인들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제57주년 본당의 날(10월11일) 행사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본당의 날 특별 행사는 없습니다.
- 본당 달력 광고 신청
 - 2021년도 본당 달력 광고를 접수 받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개별 예약)
- 고해소 사용
 - 고해소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손소독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짧게 본인의 고해만 합니다.
-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안내
 - 성당 입구에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 바코드를 무인 단말기에 접촉(터치)하여 본인 스스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본당 신자는 사무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 미사 참례시 주의사항
 - 성당 정문을 이용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은 후, 키오스크에 바코드로 출입을 기록합니다.
 - 바코드가 없는 타본당 신자는 수기로 기록합니다.
 - 손 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 “X”라고 써있는 곳은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성당 문을 여는 시간은 새벽 5시50분입니다.
 - 너무 일찍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세례식 일정

참고, 세례연습	10월11일(주일) 교중미사 후
세례식	10월17일(토) 14:00
첫 영성체	10월18일(주일) 교중미사 중

지역별 주일 미사 참례 시간

구 분	새벽미사 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10월04일	2지역	3지역	4지역	1지역
10월11일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월18일	4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10월25일	3지역	4지역	1지역	2지역

- 구역 외 신자분들은 12시, 저녁 7시 미사에 참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서울 대교구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주일 (10/11)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9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

- 추석 명절 연휴에 따른 인쇄 마감 일자 변경으로 우리들의 정성은 다음 주에 이월하여 게재합니다.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10/4	황원선	오성환 서윤석 도현만 신종구	최승일 권태희
10/11	권태희	조용환 이응남 김진수 최상림	허문석 김강자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밤9시
10/4	최상남	박승환	최석준 김광수 김영배	이운영	박형순	없음
10/11	이성일	최승일	김인기 박승환 박용환	박형순	김인기	없음

주보 7면

- 성당출입 발열검사 봉사자 모집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성당출입 발열검사 봉사자 모집 ***

- 시 간 : 평일 미사(월요일 ~ 토요일 새벽미사)
 - 하실일 : 성전 입구에서 평일 미사에 참석하시는
신자들의 발열검사와 출입기록 도와주기
 - 대 상 : 65세 미만의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으신 분
- * 사무실에 접수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진리 안의 사랑 사랑과 진리

진리를 상대화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는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진리 안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리스도교 가치를 따르는 일이 바람직한 사회 건설과 참되고 온전한 인간 발전을 이루는 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진리 없는 사랑의 그리스도교가 있다면, 사회적 결속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차적인 좋은 감정들의 집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느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사랑은 관계가 결여된 좁은 영역에 갇혀 버립니다. 사랑은, 지식과 실천의 대화를 통하여 전 세계의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계획과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맙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진리 안의 사랑>(2009년)4항

진리 안의 사랑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은 사랑의 주체가 됩니다. 인간은 은총의 도구가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의 그물을 짜도록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주고받는 사랑의 역동성이 교회의 사회 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관련한 진리 안의 사랑인 사회 교리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 교리는 사랑을 위한 것이지만 진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계속 변화하는 역사적 사건에서 사랑의 해방시키는 힘을 보존하고 드러냅니다. 이는 신앙의 진리이며 또한 이성의 진리입니다. 이 두 인식 영역이 구별되면서 만나는 곳에 이 진리가 있습니다. 발전 사회 복지, 인류를 괴롭히는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 추구, 이 모든 것에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필요한 것은 이 진리를 사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는, 참된 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없이는 사회적 양심과 책임이 있을 수 없고, 사회적 활동은 결국 사적인 이익과 권력의 논리를 따르게 되어, 세계화된 사회에서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사회적 분열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진리 안의 사랑>(2009년)5항

진리 안의 사랑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진리 안의 사랑은 모든 이가 받는 은총이므로 그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며, 어떠한 장벽이나 경계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일치시킵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인간 공동체는 순전히 그 자체의 힘으로는 결코 완전한 형제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참으로 보편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형제적 친교인 인류의 일치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겨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은총의 논리가 정의를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외부에서 덧붙여진 부차적인 요소로 나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 사회, 정치적 발전이 참으로 인간다운 것이 되려면 형제애의 무상성(無像性)의 원칙이라는 여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진리 안의 사랑>(2009년) 34항